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의 어휘 소개란 「독자사전」 연구

최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수료, 한국어교육 전공

jyny@koti.re.kr

- I. 머리말
 - II.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레닌기치》
 - III. 《레닌기치》 「독자사전」 분석
 - IV. 맺음말
-

I. 머리말

신문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담고 있기에 발행 당시의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간행'된다는 특징이 있기에 통시적으로 사회의 흐름을 살펴보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한다.¹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지역 한인언론은 이주 한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역사와 문화를 살피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러시아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1860년대에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 이주 한인들은 이주 후 계몽, 항일투쟁, 공산주의 사상 선전, 농·공·광·어업 등의 생산량 증대 독려 등 시기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인의 러시아 정착을 돕고 삶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십년 동안 신문은 지속적으로 발행되었으며, 신문의 발행과 폐간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지역 한인언론의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어섰다. 이중 《레닌기치》는 대표적인 고려인 한글신문이다.

신문이 삶의 전모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레닌기치》는 50여년간 발행되면서 고려인들의 다양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 '재소한인'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일례로 고송무(1990)는 고려인의 생활, 산업, 언론, 예술 활동, 문학 등 삶의 전반을 소개하기 위해 상당수의 《레닌기치》 기사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강희진(2015, 2017, 2019), 우정권(2010), 김환기(2020) 등은 《레닌기치》 「문예페이지」 등에 수록된 고려인 문학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홍용호(2013, 2016, 2015), 김현주(2017) 등은 특정 시기의 고려인 사회를

1 '신문'의 의미는 우리말샘 '신문(新聞) 「013」을 참조하였다(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72518&viewType=confirm, 검색일: 2020.12.20).

이해하기 위한 연구자료로 《레닌기치》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레닌기치》 관련 연구는 고려인의 사회 및 문화사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고려인 문학 연구,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고려인 사회 및 문화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레닌기치》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진혜(2012), 최야나(2020) 등이 있지만, 국내 연구 중에 신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 공산당 기관지라는 신문의 위상이나, 50년 이상 장기간 발행되었다는 자료의 방대함, 그리고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신문이 원본이 아니라 주로 영인본 혹은 축쇄본으로 신문 자체의 발행 형태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레닌기치》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어려웠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덧붙여서 자료의 디지털화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신문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레닌기치》는 러시아어, 거주지 민족어(카자흐어 등), 계승어(조선어) 등 다중적인 언어 상황에서 50여 년간 순한글 신문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의 민족어 또는 계승어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신문에는 민족어의 유지나 발전에 대한 기사도 눈에 띄며, 독자들의 민족어 이해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기사들도 간혹 실렸다. 또한 ‘조선말 교수방법’이나 어문규정의 이해를 위한 기사도 수록되었고, 민족어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엿볼 수 있었다. 이외에 독자들의 민족어 신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도 수록되었는데 「독자사전」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지역 한국학 연구의 자료로 주로 활용되어 온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를 언어자료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레닌기치》 기사 중, 독자가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재한

2 ‘고려인’들의 민족어 혹은 계승어는 ‘고려말’, ‘조선어’ 등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고려인들이 가장 지속적으로 명명해온 ‘조선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독자사전」 수록 어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사전」은 50여년의 발행기간 동안 총 128회 가량 수록되었으며,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기적이고 매우 간헐적으로 수록되어 본격적인 어휘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열악한 민족어 사용 상황에서 민족어 신문 발행자들의 노력과, 당시 한국어 문어 상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레닌기치》 신문의 고려인 한글자료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분석의 첫 단계로 러시아지역 한인언론의 발행 동향과 《레닌기치》의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레닌기치》 어휘 소개란 「독자사전」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적(辭典的)인 정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독자사전」 수록 어휘의 사전적 특성과 내용은 100만 어휘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현대 우리말 오픈사전인 ‘우리말샘’의 언어정보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재외동포 언어·문화 교육자료 측면에서의 고려인 신문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 분석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독자사전」은 독립 기사가 아니라 신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게재되었기 때문에 수록 어휘의 선정 이유나 특징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어휘가 수록된 신문기사나 신문이 발행된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레닌기치》 신문이 민족어 신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언어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발행기간 전반에 실린 특정 칼럼에 대해 다루고 있어, 각각의 기사, 즉 일자별 어휘 수록의 시대적 특징까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닌기치》 「독자사전」의 한글 언어자료로서의 가치와 의의라는 거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통해 미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레닌기치》

1. 러시아지역 한인언론의 흐름

러시아지역에서는 1908년 최초의 한글신문인 《해조신문》을 시작으로 《대동공보》(1908), 《대양보》(1911), 《권업신문》(1912), 《대한인정교보》(1912), 《청구신보》(1917), 《한인신보》(1917), 《국민성》(1919), 《새세계》(1920), 《동아공산》(1920), 《붉은귀》(1922), 《로동자》(1922), 《선봉》(1923), 《연해주어부》(1930), 《광부》(1932), 《당교육》(1932), 《동방꿈뜨나》(1933), 《공격대원》(1933), 《스탈린네츠》(1933), 《레닌광선》(1936), 《레닌기치》(1938), 《고려일보》(1991), 《고려신문》(1997), 《러시아고려인》(1997), 《겨레일보》(1993), 《새고려신문》(1991) 등의 다종 다양한 신문이 발행되었다.³ 신문은 시기별로 계몽 및 항일,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과 경제발전, 강제이주와 중앙아시아 정착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각각 그 특징을 담고 있다.

처음 러시아지역에서 한인신문이 발행된 1900년대는 러일전쟁(1904), 을사늑약(1905)과 치열한 의병항쟁, 피의 일요일 사건(1905), 러시아 입헌군

3 《대동공보》(1908-1910), 《권업신문》(1912-1914), 《대한인정교보》(1912-1914), 《청구신보》(1917-1919), 《동아공산》(1920-1921), 《연해주어부》(1930-1933), 《광부》(1932-1933), 《당교육》(1932-1934), 《공격대원》(1933-1935) 등은 자료를 통해 창간 및 중간 연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외 자료는 유실 등으로 발행 횟수나 중간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아 창간연도만을 신문명 옆에 병기하였다. 《새고려신문》(1991)은 1949년 《조선노동자》로 창간(1961년 《레닌의 길로》로 변경)된 사할린 지역 한글 신문이다. 중간 및 창간연도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다음 2개의 문헌자료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김정현·장우권·김홍길, 「러시아에서의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1900-19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363쪽;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경인문화사, 2008).

주제의 채택(1905), 헤이그 특사사건의 실패(1907) 등 조선과 러시아 모두에게 격동의 시대였다. 이 시기 러시아 이주 한인들은 초기와는 달리 다소의 생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일정한 세력도 형성하였으며, 조국의 일제 식민지화를 목전에 두게 됨에 따라 자신들의 안위와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신문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도 하게 되었다.⁴ 이 시기 대표적인 한인언론으로는 《해조신문》, 《대동공보》, 《권업신문》 등이 있었다.

《해조신문(海朝新聞)》은 ‘블라디보스토크(해삼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간행하는 신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1908년 2월 26일 순한글 일간지로 발행되었다.⁵ 신문의 구성원에는 미국과 국내 신문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신문의 독자 대부분이 빈농과 노동자였기 때문에 한글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⁶ 《해조신문》은 국내 각지에도 배달되었지만, 일본의 압력, 러시아 당국의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압박, 한국인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1908년 5월 26일자로 3개월 만에 폐간되었고, 한국국민회(韓國國民會)의 기관지인 《대동공보(大東共報)》가 약 2년 동안(1908.6-1910.9) 주 2회 발간되면서 그 빈자리를 이어나갔다.⁷ 권업회의의 기관지인 《권업신문(勸業新聞)》은 약 2년간(1912.4-1914.8) 총 126호가 발행되었는데, 주 1회 4면으로 간행된 순한글 신문으로 민족지의 성격을 가졌다.⁸

4 박환(2008), 위의 책, 8-10쪽.

5 다음 2개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박환(2008), 위의 책, 4쪽; 《해조신문(海朝新聞)》(ko.wikipedia.org/wiki/%ED%95%B4%EC%A1%B0%EC%8B%A0%EB%AC%B8, 검색일: 2021.2.17).

6 박환(2008), 위의 책, 30-31쪽.

7 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대동공보&ridx=1&tot=4, 검색일: 2020.12.19.

8 박환(2008), 위의 책, 144쪽.

1917년 이후 1937년 강제 이주 이전까지의 한인언론은 발행처가 고려족 연합중앙총회, 지역별 고려인공산당 및 관련 기관 등이었는데,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완성 후 신문의 방향이 공산혁명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완성과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전 시기와는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당의 중요한 결정 선전 등을 수록하였으며, 신경재정책(1921-1928),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28-1932), 제2차 5개년계획(1933-1937)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업, 농업, 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정보 전달, 과업 목표 설정과 독려, 집단농장의 성공사례 제시와 생산량 증대 독려 등의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발행지역도 이전 시기와 달리 확대되었는데, 연해주 지역 이외에 하바롭스크, 치타, 옴스크, 포시에트, 스코프브, 이르쿠츠크 등 다양한 지역 공산당 한인지부 등에서도 신문이 발행되었다.⁹ 당 기관지로 발행되었지만 신문은 대부분 유가이었다. 대표적인 신문으로는 《청구신보》(1917), 《한인신보》(1917), 《로동자》(1922), 《선봉》(1923), 《연해주어부》(1932), 《광부》(1932), 《당교육》(1932), 《공격대원》(1933), 《동방꿈무나》(1933), 《쓰딸린네츠》(1933) 등이 있다. 《연해주어부》와 《광부》는 지역 산업의 독려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러시아 신문기사의 내용을 인용 및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¹⁰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한인언론은 '전동맹공산당해삼현간부'가 1923년 3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한 《선봉》으로, 창간시 명칭은 《三月一日》이었으며, 이후 제호를 변경하였다.¹¹ 창간목표는 “12만 고려주민의 귀를

9 김정현·장우권·김홍길(2006), 앞의 논문, 363쪽.

10 박환, 「1930년대 러시아지역의 한글신문 및 잡지 발간경위와 논조」, 『연해주어부, 광부, 당교육, 동방꿈무나, 공격대원, 쓰딸린네츠, 레닌광선, 로동자(1)』(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i-viii쪽.

11 《동아일보》, 1923년 4월 1일자, 3면(newslibrary.naver.com/vieer/index.nhn? publisDate=

열며 눈을 뜨게” 하려는 데 있었으며, 연해도 고려인의 계급적 각오와 공산주의적 교양 고취, 당과 소비에트 주권의 소수민족정책 선전, 고려 인민의 경제 및 문화 발전·생활 향상 후원, 각국의 혁명소식 전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¹² 이외에도 조선 소식, 고려인의 모국어 교수 문제 등 민족 관련 기사도 다수 수록하였고, ‘문예폐지’ 등의 지면을 통해 고려인 문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자의 소리’, ‘우테함’, ‘독자문예’, ‘퀴즈’ 등 독자란을 운영하며 독자와의 소통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선봉》은 이 시기 다른 신문들이 2-3년 정도로 단기간 발행된 것에 비하여 1937년 9월 12일까지 총 1,644호가 발행되어 14년 이상 안정적으로 발행되다가 1937년 강제 이주 직전에 폐간되었다. 1937년 9월 5일자 신문에는 신문 구독 광고가 실려 있고, 중간호인 9월 12일자 기사 중에는 다음호 연재 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중간호 발간 시점까지도 신문의 운명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러시아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다수의 한인언론들이 발굴되어 국내에 소개되었지만, 결호, 손상 등으로 1937년 강제이주 이전까지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내 소개 자료들을 살펴보면, 1930년대 초반에 특히 1933년 무렵이 한인언론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908년 《해조신문》 발행을 시작으로 축적되어 온 한인언론의 저력은 1937년 강제이주 직후 《레닌기치》와 같은 민족 신문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23-04-01&officeId=00020&pageNo=1, 검색일: 2020.12.20).

12 이균영, 「해제」, 『선봉1』(고려서림, 1999), 1-4쪽.

13 《선봉》, 1937년 9월 5일자, 9월 12일자 참조.

2. 《레닌기치》

1) 신문의 창간, 발행처, 발행지

《레닌기치》는 1938년 5월 15일 창간한 강제이주 이후 거의 유일한 한인언론으로¹⁴, 연해주에서 1923년 3월 1일 창간하여 1937년 9월 12일 폐간된 《선봉(先鋒)》의 후신(後身)이자 1991년 제호(題號)와 발간주기 등을 변경하여 발행된 《고려일보》의 전신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¹⁵ 창간호에서 ‘독자들에게-창간사의 대신에’라는 기사를 통해 내용이 충실한 신문을 달라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볼셰위크적 출판물’이라는 발간 포부를 드러내고 있으며, ‘카사크 쎬쎬르 최고 쏘베트의 선거규정’의 연재를 예고하고 있어 공산당 기관지라는 신문의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¹⁶

강제이주를 겪으면서 연해주 지역 신문사들은 모두 폐쇄되고 주필을 비롯한 신문사 간부들이 모두 숙청된 가운데, 황동훈·염사일·서재욱 등이 신문 복간을 위해 노력하여 4면짜리 타블로이드판 한글신문의 월 15회 6천 부 발행이 허가되었다.¹⁷ 첫호 발행 당시의 제호는 《레닌의 기치》였으며, 1950년 7월 28일자부터 《레닌의 기치》로, 1952년 1월 1일자부터 《레닌기치》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신문 발행 주체도 처음에는 ‘카작쓰만 공산당(볼셰위크) 중앙위원회 크슬-오르다 주 조직부료와 씨르-다리아 구역위원회’로

14 1949년 사할린 지방에서 발행된 《레닌의 길로》가 있지만, 전국신문으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15 《레닌기치》 중간호(1990.12.29)에 1991년부터 《고려일보》로 새롭게 탄생함을 밝히고 있으나, 《레닌기치》와는 무관하게 소련 중앙정부로부터 정기간행물 발간 허가를 얻어 ‘재소고려인전국신문’으로 발행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레닌기치&ridx=0&tot=37, 검색일: 2020.12.20)

16 《레닌기치》, 1938년 5월 15일자, 1면 참조

17 김병학, 「재소고려인 한글신문 고려일보의 역사와 전망」, 『재외한인연구』 제46호(2018), 44-46쪽.

구역신문에 지나지 않았으나, 1940년 '카사흐스탄 공산당 크슬오르다 주위 원회와 시위원회 및 로력자 대의원 주썬베트 기관지'인 주립신문으로, 1954년 '카사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카자흐스탄공화국 전체 신문으로, 1960년에는 '공화국간 공동신문'으로 격상되었다.¹⁸

신문의 발행지도 1978년 8월 말 9월 초에 신문사 본사 이전과 함께 알마티로 이전되었다. 신문은 보통 말미에 신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인쇄소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통합호로 발간된 1978년 8월 22일자(171-172호) 6면 말미에 발행지는 '크슬오르다주', 인쇄처는 '크슬오르다주 출판 인쇄 및 도서관매관리국직속 제12호인쇄소'로 소개되어 있으나, 9월 1일자(175호) 4면 말미에는 "친애하는 독자여러분! 오늘부터 본보는 알마아타시에서 발간됩니다. 편지, 기사, 서신물들은 다음의 주소로 보내십시오"라는 안내와 함께 알마티 주소를 소개하고 있다. 9월 5일자 신문에는 이전 신문과 달리 주소를 한글과 러시아어로 병기한 점이 특징적이다.

2) 신문의 정가

《레닌기치》는 유가지였기 때문에 신문의 정가는 발행 횟수나 면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호와 증면 발행을 이해할 수 있다. 1938년 신문의 호당 정가는 8코, 1개월 80코, 6개월 4루 80코, 1년 9루 60코였다.¹⁹ 신문은 독자들의 구독 편의를 위해 이듬해 발행될 신문구독 광고를 실었는데, 이 광고들에 의하면 1941년 호당 정가는 10코, 1개월 1루 30코, 6개월 7루 80코, 1년 15루

18 다음 2가지 자료를 참조하였다. 김병학(2018), 앞의 논문, 44-46쪽; 《레닌기치》, 1938년 5월 15일자, 1면; 1954년 1월 5일자, 1면; 1960년 1월 1일자, 1면.

19 《레닌기치》, 1938년 5월 15일자, 1면, 4면. 신문의 정가는 날짜 아래에 표시되어 있으며, 한달, 반년, 일년 구독료가 4면의 가장 뒷부분에 게시되어 있다. 1루=1루블, 1코=1코페이카

60꼬였고, 1945년에는 호당 정가가 20꼬, 1개월 2루 60꼬, 3개월 7루 80꼬, 6개월 15루 60꼬, 1년 31루 20꼬였다.²⁰ 1960년에는 호당 정가가 20꼬, 3개월 13루 5꼬, 6개월 26루 10꼬, 1년 52루 20꼬였다.²¹ 1961년부터는 화폐개혁으로 정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1962년에는 호당 정가가 2코페이카, 1개월 44코페이카, 3개월 1루블 32코페이카, 6개월 2루블 64코페이카, 1년 5루블 28코페이카가 되었으며, 1984년에는 1개월 55코페이카, 3개월 1루블 65코페이카, 6개월 3루블 30코페이카, 1년 6루블 60코페이카로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었다.²² 구독료는 사전구독, 장기구독을 하여도 동일하였다. 신문 구독자 사전모집은 구독자 모집광고에 기술된 것처럼 독자에게는 한정판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신문사에는 재정 및 인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재원 확보방안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다.

3) 신문의 구성과 분량

신문은 소련 정부의 중요한 정치 관련 기사 등을 1면에, 2면에는 1면 뉴스에 대한 해설 혹은 공화국 내 중요기사를, 3면에는 지방 소식이나 다민족 관련 기사를, 4면에는 국제소식, 유모, 문예, 서적 소개, 광고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1960년대에는 신문에 조선말 교수와 관련하여 ‘조선어 철자법’, ‘조선어 교과서에 대한 몇 가지 지적과 의견’, ‘조선어 교과서에 대한 정오표’ 등의 기사가 1면에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사회에서 ‘조선어’에 대한 관심이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스탈린 사후 신원 복권, 일부 민족 자치의 허용, 1958년 교육법

20 《레닌기치》, 1940년 12월 26일자, 4면; 1944년 7월 26일자, 4면.

21 《레닌기치》, 1960년 10월 4일자, 4면.

22 《레닌기치》, 1961년 10월 15일자, 4면; 1984년 9월 4일자, 4면.

개정 등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지만,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1989년에도 조선어 학습란을 약 73회에 걸쳐 ‘조선글과 말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는데, 4면에 러시아어로 연재하고 있어 시대가 흐름에 따라 대중의 조선어 이해도가 떨어지고,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1990년 12월 29일까지 52년 7개월 동안 지면에 표기된 신문의 총 발행수는 통권 11,878호지만, 통합호 발간 및 통권표기 오류 등도 있어 실제 발행된 신문의 숫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적게는 2면에서 많게는 16면으로 발행되었는데, 1942-1947년, 그리고 1953-1954년 기간 동안 발행된 약 1,156호의 신문 가운데 약 382호가 2면으로 발행되었다.²³ 이외의 기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문이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1943년 10월 1일자(2면)에 ‘독자들에게’라는 란에 “인쇄직공의 불족으로 인하여 본보의 지면을 당분간 반분까지 축소하였으므로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편집부에서)”라는 안내를 싣고 있는데, 원활한 신문 발간의 조건으로 기사나 기자 확보, 재정 사정 못지않게 인쇄소 사정도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신문 중 증면하여 발행한 경우도 있었는데, 118건이 6면으로, 29건이 8면으로 발행되었고, 증면 발행의 경우는 통합호로 발행된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 16면으로 발생한 경우도 1건이 있었는데, 1988년 5월 15일(통권11222호)자 신문으로 ‘레닌기치 50주년 특집호’였다.

4) 주필

《레닌기치》의 주필은 서재욱(1938.5.15.-1945.8), 남해룡(1946.11.23-1964.8.2), 송진파(1964.8.4-1976.1.27), 김중길(1976.2.13-1977.2.23), 김광

23 본 연구에서 조사한 11,148건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1977.8.12-1981.4.15), 한 인노켄치(1981.4.16-1989.3.25), 조영환(1989.3.26-1991.6.12) 등 7명이다.²⁴ 이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8년까지도 주필을 역임하였는데, 남해룡이 가장 오랜 기간 주필을 역임하였다. 창간호는 서재욱 주필이 발행하였고, 남해룡 주필 시기에는 제호가 '레닌의 기치'에서 '레닌기치'로 변경되었다. 김광현 주필 시기에는 신문사가 얼마아타로 이전하였으며, 조용환 주필 시기에는 신문이 《고려일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신문은 간혹 '대리주필', '림시대리주필', '부주필' 명의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레닌기치》는 공산당 기관지였기 때문에 당의 정책기조나 경제 정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신문의 논조나 기사의 경향을 단순히 주필 재직시기와 연결짓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외의 기사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분석할 때는 주필별 신문 기사의 특징 등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Ⅲ. 《레닌기치》 「독자사전」 분석

1. 「독자사전」 수록 정보 분석

1) 분석 대상, 명칭, 운영 시기, 수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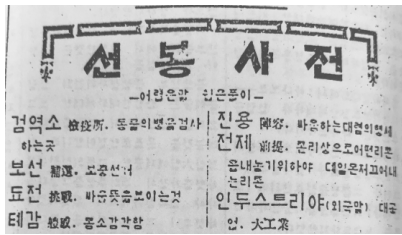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레닌기치》 신문을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자료들 중 유실 및 손상된 날짜의 신문을 제외하면 연구대상 신문의 수는 대략 11,148건이다.²⁵ 《레닌기치》 1940년

²⁴ 김병학(2018). 앞의 논문, 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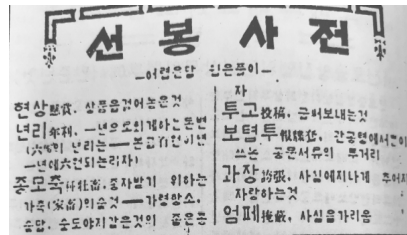
²⁵ 1977년 및 1982년 7-12월 기간 발행 신문과 이외의 기간 중 자료의 일부 손상 또는 유실 호수는 불가피하게 연구 대상에서 누락되었으며, 연구대상 자료 중에서도 연구자의 실수로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11,148호는 통권11878호 기준 약 94% 분량이다.

5월 10일자에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붙여 좀 어려운 술어와 외래어를 본보에 매우 간단히 해석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독자사전」²⁶ 란을 신고 있다. 발행기간 동안 「독자사전」은 17개년에 약 128회, 1,221개의 어휘를 소개하였다.²⁷ 《레닌기치》의 전신이라 평가되는 《선봉》 신문에 또 어려운 어휘를 소개하는 「선봉사전」란이 있었는데, 비교적 설명이 간단하고 한자어는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이 「독자사전」과는 차이가 있다.²⁸

어휘들은 ‘독자사전(87회, 764개)’, ‘신문사전(26회, 354개)’, ‘어려운말마디풀이, 어려운말풀기, 어려운말풀이(14회, 77개)’, ‘용어해설(1회, 26개)’ 등의 이름으로 지면에 소개되었는데, 1940년, 1954년, 1958년, 1960-1971년 기간에는 ‘독자사전’ 또는 ‘신문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989년과 1990년에는 ‘어려운말풀이’ 등으로 수록되었다. 어휘 소개는 주로 4면에 배치되었는



『선봉』, 1926년 12월 2일자, 4면



『선봉』, 1926년 12월 16자, 4면

그림1-「선봉사전」 편집 현황

- 26 본 연구에서는 어휘 소개 지면명으로 가장 많이 소개된 「독자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어휘소개 지면명을 통칭하고자 한다.
- 27 신문이 오랜기간 발행되어 소개 어휘 중에는 60여 개가 중복 수록되었고,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별개의 어휘로 처리된 경우가 있어 실제 소개된 어휘수는 1,221개보다 적으며, 분석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시기나 유실 자료 등에도 「독자사전」 포함 가능성이 있어 이 숫자는 변동 가능성을 밝혀둔다.
- 28 《선봉》 신문에 1926-1927년 기간 동안 680여 개의 어휘가 소개되었는데, 한자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어휘 소개 방식이나 주제, 회당 소개 내용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문이 독자를 계몽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발간의 목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데 전체 1,221개 중 1,098개(90%)가 4면에 수록되었다. 2면(3%, 35개)과 3면(7%, 88개)에 수록된 경우는 특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어려운말 풀이, 어려운말 풀기, 어려운 말마디, 용어해설’ 등으로 실렸다.²⁹ 한 번에 수록된 어휘의 수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8개였는데, 5개 이하로 수록한 경우가 30회, 6-10개 수록의 경우가 51회, 11-15개 수록의 경우가 36회, 16개 이상 수록한 경우가 11회였으며, 7개를 수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수록 어휘는 필요에 따라 개수나 설명의 양을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중진·엄태경(2015)은 사전의 미시구조적 정보를 크게 ① 표제어, ② 발음정보, ③ 문법정보(품사, 어원, 형태 및 통사정보 등), ④ 뜻풀이, ⑤ 용례, ⑥ 관련어 정보로 나누고 있는데, 《레닌기치》는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어휘를 소개하고 있지만 표제어에 대해 뜻풀이와 용례를 소개하고, 간혹 관련어 정보 등을 소개하였다. 즉 언어사전과 같이 발음정보나 문법적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순수하게 어려운 어휘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밝힌 포부와는 달리, 신문에 어려운 어휘에 대한 풀이를 소개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인 1940년의 경우도 5월 10일, 22일, 6월 6일, 7월 18일 등 단 4회 정도 수록하였고, 이후 공백기를 거쳐 1954년에 이르러야 좀 더 안정적으로 어휘 소개에 지면을 할애하게 된다.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전체 수록 어휘의 79% 가량이 소개되었다. 가장 활발하게 「독자사전」이 운영되었던 시기는 1958년으로

29 신문은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면을 다양하게 제공하였는데, ‘로 씨야 속담’, ‘중국어격언’, ‘아라브격언’, ‘독자들을 위한 정치사전’ 등이 있다. 제공된 지면의 성격과 지향점은 다르지만, 독자와 소통하려는 편집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0개월 동안 21회, 229개 어휘가 소개되었다. 가장 지속적으로 「독자사전」이 운영되었던 시기는 1962년 4월부터 1963년 9월까지 기간으로 18개월 간 27회, 228개 어휘가 소개되었다. 1964년, 1966년, 1969년의 경우도 두 달에 한번 이상 「독자사전」이 운영되었다. 이후 1989년에도 일시적으로 어휘 소개 지면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연도별·월별 《레닌기치》 「독자사전」 운영횟수 및 수록 어휘수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독자사전」 어휘 수록상의 특징이나 특정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독자사전」이 수록된 일자를 중심으로 한 기사 분석

표1-월별·연도별 「독자사전」 수록 횟수 및 수록 어휘 수

연도	월별 독자사전 운영 횟수												수록 월수	연도별 수록횟수	수록 어휘수	연대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40					2	1	1						3	4	26	26
1954						1		3	1				3	5	125	354
1958			2	4	2	3	3	2	2	1	1	1	10	21	229	
1960								2					1	2	21	
1961			2		2								2	4	36	718
1962				2	2	1	3	1	1	1	1	3	9	15	123	
1963	1	2	1	2	1	1	1	1	2		1		10	13	105	
1964		1	1			1		1		1	1	2	7	8	95	
1965	2	2		2						1			4	7	74	
1966	1	1	1	4	2	2	1	1			1		9	14	98	
1967			1							1			2	2	23	
1968					2	2	1					1	4	6	59	
1969	2	2			2		2	1	1				6	10	84	
1970				1									1	1	13	20
1971					1								1	1	7	
1989					1	4	1	5	1				5	12	71	71
1990		2		1									2	3	32	32
합계	6	10	8	16	17	16	13	17	8	5	5	7	77	128	1,221	-

및 관련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나아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 신문 편집진의 간행 기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문화 다민족 국가였던 구소련의 언어문화정책 기조 변화와의 관련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8-1959년 기간은 언어에 대한 자유선택권을 인정하는 교육법이 시행되어 교육 매개어의 러시아어 전환, 민족어 의무교육 폐지 등이 진행되었고,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는 러시아어가 상층언어로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는 점³⁰ 등 소련의 언어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도 그 관련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레닌기치》 신문 기사분석 등을 통한 「독자사전」 수록 어휘 선정 상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레닌기치》 전체 발행 기간 중 소개된 어휘 전반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2) 어휘의 배열

「독자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배열 순서는 ‘본보47-48호를 참조’³¹, ‘근자에 발간된 신문들을 참조할 것임’³², ‘제151-제154호 중 어려운 말들’³³ 등의 해설이 덧붙여진 것에서 미루어 보아, 주요 기사에 등장하는 어휘 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40년 5월 10일자 「독자사전」 수록 어휘 ‘공예작물, 생면, 저수지, 툄리, 꿀찌와치야, 곰모즈, 진가우즈’는 “카사흐 쉐쎌르 남쪽주들에서 농업과 특히 공예작물을 더 향상시킬 대책들에 대하여 쉐쎌르 인민위원쑤베트와 전동맹공산당(볼)중앙위원회의 결정-”이

30 유승만,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이론과 실제」, 『러시아연구』 제18권 제2호(2008), 150-151쪽.

31 《레닌기치》, 1940년 6월 6일자, 4면.

32 《레닌기치》, 1940년 7월 18일자, 4면.

33 《레닌기치》, 1954년 8월 13일자, 4면.

라는 기사에 사용된 어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이 기사는 1-3면에 걸쳐 수록된 기사이다.

또한 1958년 3월 9일자 「신문사전」에는 “(독자여러분께) 레닌기치에 쓰이는 술어들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술어들을 해석해달라는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편집부는 매 주일에 한번씩 신문사전을 신기로 작성하였습시다. 술어 해석은 주로 조선어 상식이 약한 특히 한문에 대한 개념이 적은 독자들을 표준합니다.”라고 신문에 실리는 어휘의 내용과 설명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신문의 편집진과 독자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신문은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면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과, 조선어의 이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3) 다의어, 동음이의어의 처리

《레닌기치》는 순한글 신문으로 발간되어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지만, 많은 어휘들의 의미를 구별하여 전달하는 데는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독자사전」 수록 한자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독자사전」 수록 어휘 1,221개 중 80% 가량이 한자어에 해당하는데, 한자를 병기할 수 없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수록에 애로가 있었으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가 혼용되어 소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의어는 하나의 어휘가 의미를 확장하여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게 된 어휘를 말하는데, 이 의미들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신문에 소개된 다의어로는 1958년 7월 27일자에 소개된 ‘초소’³⁴, 8월 3일자에 소개된

34 ① 보초가 서는 장소. ② 무엇을 보위하는 제일 전선.

‘추태’³⁵, 8월 24일자 소개된 ‘조락’³⁶ 등이 있으며, 이 어휘들은 두 개 이상의 유사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한다. 1964년 10월 18일자에서는 ‘유전1, 유전2, 정보1, 정보2, 정보3’³⁷ 등 동음이의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중 ‘유전2’와 ‘정보1’은 다의어 정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소개한 경우도 있지만, 동음이의어를 다의어처럼 소개한 경우도 있다.

1958년 3월 9일자 소개 어휘 중 ‘거부’는 “① 거절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어떤 의견을 거부하다). ② 매우 큰 부자(백만 거부)”라고 두 가지 뜻을 가진 어휘로 설명되어 있는데, ‘거부(拒否)’와 ‘거부(巨富)’로 동음이의어인 다른 어휘이다. ‘성명’도 “① 성과 이름. ② 말로써나 글로써 하는 공식적인 발표(정책에 대하여 성명하다, 결의에 대하여 성명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동음이의어인 ‘성명(姓名)’과 ‘성명(聲明)’을 하나의 어휘로 설명한 결과이다. 1958년 6월 1일자 소개 어휘 ‘조류’도 “① 조수의 유동. ② 일정한 활동분야에서 나타나는 경향. ③ 새의 총칭”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한자어 ‘조류(潮流)’, ‘조류(潮流)’, ‘조류(鳥類)’로 의미별로 각각 다른 어휘이다. ‘사리’도 “① 개인의 리익. ② 사물의 리치”라는 두 가지 의미의 어휘로 소개되었지만, 한자어 ‘사리(私利)’와 ‘사리(事理)’의 설명을 하나의 어휘로 소개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1965년 2월 9일자에 수록된 ‘원고(истец)’는 “① 소송에서 소송을 일으킨 사람[原告]. ② 주로 인쇄에 부치기 위하여 일정한 종이에

35 ① 창피한 꼴. ② 추접스럽고 아니꼬운 태도.

36 ① 나무 잎이 시들어서 떨어짐. ②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없어짐.

37 유전1: 원유가 많이 나는 시대. 유전2: ① 선조의 성질이나 체질의 특성이 후대에게 전하여지는 현상. ② 후세에 남겨 전해짐; 정보1: ① 정세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 또는 그 내용이나 그 자료. ② 자동 조종 체계에서의 신호, 즉 신경 체계나 자동 기구 등에서의 외부적 자극의 전달. 정보2: 대렬 행진에서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걷는 걸음. 정보3: 조선과 일본에서 땅 면적을 재는 일정한 단위(0.992헥타르).

써 놓은 글이나 그림 따위[原稿], 1966년 6월 1일자에 수록된 ‘경토’는 “① 차진 기운이 적어서 갈기 쉬운 흙[耕土]. ② 갈아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땅[輕土]”, ‘상량’은 “① 헤아려서 잘 생각함[商量]. ② 쪼구미우에 마루'대를 올려 놓음[上樑/上梁]”, 1954년 8월 13일자에 수록된 ‘제재’는 “① 문학작품 제목과 재료[題材]. ②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것[制裁].” 등 모두 동음이의어를 다의어처럼 소개하고 있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혼용한 경우는 대부분 한자어로, 의미를 변별해 줄 수 있는 한자의 부재에 기인한다.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어 사전류의 경우 어휘풀이는 순한글로 되어 있지만 한자어는 뜻풀이 말미에 한자를 수록하여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있다. 한자를 병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의미의 확장이 큰 다의어의 경우는 동음이의어와의 구별이 어렵기도 하고, 독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독자사전」의 한자어 관련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제시 사례는 일관성은 없지만, 한자를 배제한 어휘의 의미 설명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휘의 의미를 재편하여 소개하는 일은 언어학 및 교육학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향후 비한자문화권의 한국어 어휘교육에서 한자어 동음이의어의 어휘 소개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생각해보게 한다.

4) 주필별, 요일별 수록 현황³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닌기치》는 발행기간 동안 7명의 주필이 활동하였는데, 「독자사전」은 7명의 주필 중 서재욱, 남해룡, 송진파, 조영환 주필 재임기에 수록되었고, 김중길, 김광현, 한 인노켄치 주필 재임기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어휘들은 서재욱·송진파 주필 재임기에는 ‘독자사전’, 남해룡

38 본 연구에서는 「독자사전」의 주필별, 요일별 수록 현황을 양적 자료로만 제시한다.

주필 재임기에는 ‘독자사전(1960-1971)’, ‘신문사전(1954-1958)’, 조영환 주필 재임기에는 ‘어려운말마디풀이, 어려운말풀기, 어려운말풀이, 용어해설’ 등의 제목하에 수록되었다.

주필별로 어휘소개란 수록 횟수 및 수록 어휘수는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남해룡(681개, 55.8%) 주필 시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송진파(411개, 33.7%) 주필시기이다. 「독자사전」은 임시주필, 대리주필, 부주필 등이 발행한 신문에도 수록되었다. 조영환(103개, 8.4%) 주필 시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휘를 간단하게 자주 소개하였다. 발행기간 동안 어휘는 회당 3-28개를 수록했는데, 평균 9.5개가 소개되었다. 소개된 어휘의 수와 풀이는 할애 가능한 지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필별 「독자사전」 수록 횟수와 수록 어휘 수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주필별 어휘소개란 수록횟수 및 소개 어휘 수

주필	재임시기	발행시주필명(직책)	계재 횟수	어휘 수	평균	비율(%)
서재욱(7.3)	1938.5.15-1945.8.31.	서재욱 (주필)	4	26	6.5	2.1
남해룡(17.7)	1946.11.23-1964.8.2.	남해룡 (주필)	45	481	10.7	55.8
		렴사일 (부주필)	1	20	20.0	
		김국천 (부주필)	10	104	10.4	
		전동혁 (임시대리주필, 부주필)	5	47	9.4	
		한상욱 (임시대리주필)	3	29	9.7	
송진파(11.5)	1964.8.4-1976.1.27.	송진파 (주필)	37	324	8.8	33.7
		전동혁 (부주필)	8	87	10.9	
김중길(1.0)	1976.2.13-1977.2.23.	해당없음	0	0	0	0
김광현(3.7)	1977.8.12-1981.4.15.					
한인노깬치(7.9)	1981.4.16-1989.3.25.					
조영환(1.8)	1989.3.26-1990.12.31.	조영환 (주필)	12	87	7.3	8.4
		정성도 (주필)	3	16	5.3	
합계			128	1,221	9.5	100

표3- 요일별 어휘 수록 현황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총합계	
신문발행수 (비율)	1,376 (12%)	116 (1%)	1,973 (18%)	2,352 (21%)	1,081 (10%)	2,324 (21%)	1,926 (17%)	11,148 (100%)	
어휘 소개란 수록수 (비율)	66 (52%)	0 (0%)	18 (14%)	11 (9%)	8 (6%)	16 (13%)	9 (7%)	128 (100%)	
	사전 (비율)	64 (57%)	0 (0%)	14 (12%)	9 (8%)	7 (6%)	12 (11%)	7 (6%)	113 (100%)
	해설 등 (비율)	2 (13%)	0 (0%)	4 (27%)	2 (13%)	1 (7%)	4 (27%)	2 (13%)	15 (100%)
어휘수록수 (비율)	662 (54%)	0 (0%)	161 (13%)	137 (11%)	105 (9%)	93 (8%)	63 (5%)	1,221 (100%)	

신문은 금요일(21%)과 수요일(21%)에 가장 많이 발행되었고, 다음으로 화요일(18%), 토요일(17%), 일요일(12%), 목요일(10%), 월요일(1%) 순이었다. 「독자사전」은 일요일에 가장 많이 수록되었는데, 수록 횟수나 소개된 어휘 수 모두 일요일(66회, 662개 어휘)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화요일(18회, 161개 어휘)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요일에 높은 빈도로 수록된 이유는 「독자사전」이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점, 지면 활용의 용이함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레닌기치》에 수록된 타 기사의 분석, 신문사 운영 및 편집 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신문 11,148호의 요일별 발행횟수와 「독자사전」이 수록된 신문의 발행횟수와 수록 어휘 수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5) 기타

《레닌기치》 「독자사전」은 세로 5단, 6단, 8단으로 등으로 구성된 신문의 4면에, 한 개 또는 두 개 단 일부를 할애하여 1-3줄 구성으로 실렸는데, 대부분 지면의 오른쪽, 그리고 하단부에 수록되었다. 이외에도 특이점은

‘독자사전’이나 ‘신문사전’의 이름으로 소개된 어휘들은 대부분 내어쓰기로 편집되어 표제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비하여³⁹, ‘어려운말 풀이’ 등에서 소개한 어휘들은 표제어를 강조하여 표기하였지만 본문처럼 들여쓰기로 편집되어 있어 편집진의 수록 의도나 접근이 상이한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신문에 수록된 「독자사전」 편집 사례를 소개하면 그림3과 같다.

<p>독자 사전</p> <p>독자말의 요구에 응하여 이태왕이 첨가한 것은 순리와 같은 본보기와 관의 적신한다.</p> <p>공예자물. 공업원료로 쓰이는 석굴, 꽃 담배, 사탕무유, 연화등을 일컫는다.</p> <p>생면. 공장에서 경제의 저 안 불질물(악자, 남동)없는 면직물.</p> <p>겨수저. 물을 띄우하기 위하여 물을 채운동(겨수저)으로 편직된 불꽃문지.</p> <p>관리. 건축에 쓰기위하여 석판유에 모래를 섞어 만든 우림은 조피.</p> <p>끌찌와지야. 발에 장초를 매어 인조코 양을 보드 밑저하는 자중. 이장기 하는 크기를 끌찌와지야 쓰라 하고 십자형으로 차를짜와지야따 한다.</p> <p>공모조. 대화에서 보는 별개의 일종.</p> <p>진가우조. 독자성유에서 그 씨를 갈라내는 작업소.</p>	<p>독자사전</p> <p>(은모 47-48호을 참조)</p> <p>가우추크. 단상기전 도우, 가우추크 석광물에서 취해내는 정공을 광물에서 내 일신. 자동차 부품 중 크리크 만드는 데 사용된다.</p> <p>혼질화. 작은 가우추크양을 얻은식이며 인질양에 에 결합하여마세 새 중자중 단을제할 특수으로 가우추크를 조피(공예원료)로 사용하 인질시키는 한 방법.</p> <p>물자립. 일정한 조건에서 인질물의 양을 늘수있다.</p> <p>안가르. 비명 제복을 주는 경조직.</p> <p>독약서. 부위하는 갈, 약기 는갈.</p>	<p>독자 사전</p> <p>생면-생면도 돌직 면 직 산 물을 끓여다 되는 조. 같이 식힘-인질조 원료 한 용사됨. 공예-은은 공예 합사-인질 물체에서 취 한이 섞어 나오는 것. 조. 으로 조피는 것. 인질 조피-사출 서지가 있는 조.</p>
<p>1940.5.10.</p>	<p>1940.6.6.</p>	<p>1962.8.12.</p>
<p>독자 사전</p> <p>점입도: 점프하고 세 일한 성도. 만능 기계: 여러 자 지 자동차 앞 수 있는 기계. 예: 원물이나 원 주의 외전제 조피 면조. 그 나무의 진채 조피조. 자 중 나사 제용조 조 모두 자동차 수 있는 「만능 선단기」.</p> <p>유리: 유리 제재: 이 나 지 유리 합 전조물의 전기 중급 제재를 중 전열을 같이 비 기의 발전소제</p> <p>번갈서인 지장제 유일 동제 제재 또나 또 전국 알 전조물을 모두 편갈서인 전조제 유일 동제 제재 조 만든 동제 기계: 점입도: 기계 유의 전열 조피 기 위하여 그 제 조 과정에서 일 정한 성분은 더 보여이 넣는 합 법. 이와 마찬가지로, 양성한 합 금의 정을 늘어 기 위하여 그 중 제 과정에서 일 부 원소들 더 매어 넣는 합법.</p>	<p>독자 사전</p> <p>구멍. 내용을 깊이 깨쳐 놓는 것. 예: 조피 제 정 조를 수정하다. 점입도. 점입도: 점프하고 세 일한 성도. 만능 기계: 여러 자 지 자동차 앞 수 있는 기계. 예: 원물이나 원 주의 외전제 조피 면조. 그 나무의 진채 조피조. 자 중 나사 제용조 조 모두 자동차 수 있는 「만능 선단기」.</p> <p>유리: 유리 제재: 이 나 지 유리 합 전조물의 전기 중급 제재를 중 전열을 같이 비 기의 발전소제</p> <p>번갈서인 지장제 유일 동제 제재 또나 또 전국 알 전조물을 모두 편갈서인 전조제 유일 동제 제재 조 만든 동제 기계: 점입도: 기계 유의 전열 조피 기 위하여 그 제 조 과정에서 일 정한 성분은 더 보여이 넣는 합 법. 이와 마찬가지로, 양성한 합 금의 정을 늘어 기 위하여 그 중 제 과정에서 일 부 원소들 더 매어 넣는 합법.</p>	
<p>1966.5.24.</p>	<p>1954.8.21(2단에 1단 구성).</p>	
<p>어려운 말마다 풀이</p> <p>국가가격—국가에서 정한 상품값. 독점가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정해진 특 별한 상품값. 소매가격—상품이 소비자에게 팔릴 때 이루 어지는, 소비품의 맨 마지막 값. 수매가격—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부업경영에서 생산되는 산물 등을 국가에서 사들일 때 적용하는 값. 도매가격—생산자로부터 들어온 상품을 소매 상업기업이나 기업소에 한대 물어서 넘겨파는 값.</p>	<p>어려운 말 풀이</p> <p>(1) 시가하라—잠의 시세가 떨어질 (2) 환기—환기 (3) 무경—위를 물로아주는것 (4) 영주—일정한 곳에 오래도록 자리잡아 서 는것 (5) 자기말라—자기를 잊어버린 (6) 중동—뜻된 것을 꾸미고 책동하기 위하여 공물거리는것 또는 그런 책동이나 활동 (7) 흉격—공격하려 나갈 (8) 방금—상관하지 아니하고 겉에서 보기만 한 (9) 기장—기념장의 준말. 기념장—무슨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일에 관계된 사람에게 주는 휘장</p>	
<p>1989.5.28.</p>	<p>1989.8.8.</p>	

그림2-「독자사전」 편집 현황

39 분석대상 중 2개(1962년 8월 12일자, 1971년 5월 6일자)는 들여쓰기로 구성되었다.

2. 「독자사전」의 사전적(辭典的) 특성

1) 어휘 소개시 활용 자료

《레닌기치》에 소개한 어휘들을 설명할 때 어떤 사전이나 자료가 활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문에 어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언어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레닌기치》 발행기간 동안 간행된 사전류를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레닌기치》가 발행되던 기간에 활용할 수 있었던 한국어 관련 사전으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도로 발행된 『조선어사전』(1920),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 및 『(수정증보)조선어사전』(1940), 구소련지역에서 발행된 사전류인 『조로사전』(1951)이나, 『로조사전』(1951), 광복 후 북한지역에서 발행된 『조선어소사전』(1955), 『조선말사전』(1961-1962), 『조선문화어사전』(1973)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⁴⁰

허재영(2009)은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은 빠른 시기에 발간되었지만 ‘구관제도조사사업(舊慣制度調査事業)’의 일환으로 간행된 사전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어문생활을 반영한 사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 어휘 설명도 일본어로 되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인 《레닌기치》 「독자사전」의 기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40 참고한 사전들의 서지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데·엠·우썬또브, 유·엔·마수르, 브·엠·모스드꼬브 공저, 『로조사전』(국립외국어급 민족어사전출판사, 1951); 문세영, 『조선어사전』(조선어사전간행회, 1938); 문세영,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조선어사전간행회, 1942);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문화어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 아·아·홀로도위치, 『조로사전』(국립외국어급 민족어사전출판사, 195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편, 『조선말사전1』(과학원출판사, 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편, 『조선어소사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1955);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1920).

은 1950년대까지 동북아지역 조선어사전 편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지만⁴¹, 표제어에 「독자사전」 소개 어휘가 없거나 어휘풀이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로조사전』이나, 『조로사전』은 단순한 대역어 사전으로 기술되어 있어 어휘소개란을 위해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조선어 사전류는 공산주의 기초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련과 북한의 국가간 관계나 북한 출신 고려인들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독자사전」 어휘풀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55년 『조선어소사전』을 처음 발행하였고, 1957년부터 사전 편찬사업에 착수하여 187,137개 어휘를 수록한 『조선말사전』 6권을 1962년 완간하였는데⁴², 풍부한 해설과 용례를 제공하고 있다.⁴³ 이후 『현대조선말사전』(1969), 『조선문화어사전』(1973) 등이 발간되었다.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볼 때 「독자사전」 어휘풀이는 《레닌기치》 편집진이 보유한 조선어 사전류를 기본적으로 참고했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서 조선어사전이 발행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 발행 사전류 수록 어휘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물론 《레닌기치》가 장기간 발행되었기에 「독자사전」이 참고할만한 사전류를 시기별로 목록화하고 어휘별로 내용을 비교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독자사전」에 수록된 어휘들 중 특정시기의 어휘들은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과 비교하였을 때 일치하는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활용의 제약으로 어휘가 선별적으로 비교되어 다소 한계가

41 『조로사전』 서문에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을 참고하였음이 기술되어 있다.

42 1960년에 1권(ㄱ-ㄴ), 1961년에 2권(ㄷ-ㄱ)과 3권(ㅅ-ㅈ), 1962년에 4권(ㅈ-ㅊ), 5권(ㅋ-ㅌ), 6권(ㄷ-ㅊ)을 발간하였다.

43 이 두 권의 사전에는 한자어의 경우 표제어 옆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는 것이 이후 발간된 사전들과는 차이가 있다.

있지만, 「독자사전」의 어휘풀이와 『조선어소사전』의 기술내용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4는 《레닌기치》에 수록된 몇몇 어휘를 『조선어소사전』(1955), ‘우리말샘’의 어휘풀이와 비교한 내용이다.

표4-《레닌기치》「독자사전」 어휘의 사전별 어휘풀이 비교⁴⁴

어휘(연도)	레닌기치	조선어소사전(1955)	우리말샘
독재 (1958.5.11)	지배 계급이 자기의 계급적 원수의 반항을 내려누름에 있어서 직접 세력에 의탁하는 무제한의 정권.	자기의 계급적 적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힘에 의거한 무제한한 지배계급의 권력, 또는 그 권력을 행사함.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다.
도발 (1961.5.14)	악의를 품고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것. 레: 전쟁을 도발하다	악의를 품고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일. [전쟁 -].	남을 집적거리 일이 일어나게 함.
양키(키) (1961.5.14)	미국 사람을 증오 경멸하는 뜻으로 이르는 단어. 레: 양키는 남조선에서 물러 가라.	미국 사람을 증오 경멸하는 뜻으로 이르는 단어.	미국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본디 뉴잉글랜드 원주민의 이름으로, 독립 전쟁 때에는 영국인이 미국인을, 남북 전쟁 때에는 남군이 북군을 조롱하여 이르던 말에서 유래한다.
집행유예 (1961.5.14)	법적 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조건 밑에서 일정한 기간 그 집행을 연기하는 것.	법적 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조건 밑에서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증산 (1962.5.13)	계획보다 더 생산함.	계획보다 더 생산함.	생산이 높. 또는 생산을 늘림.
피상적 (1962.5.13)	사물의 외면에만 관계하는 것.	사물의 외면에만 관계되는 그것.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또는 그런 것.
현실주의 (1963.5.17)	전형적 특성에서 객관적 현실을 성실히 재생시킬 것을 자기의 기본 목적으로 하는 문학 및 예술에서의 주요한 경향.	전형적 특성에서 객관적 현실의 성실한 재생을 자기의 기본적 목적으로 하는 문학 및 예술에서의 중요한 경향.	현실의 조건이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며 그에 입각하여 사교하고 행동하는 태도.

44 『조선어소사전』(1955)과 ‘우리말샘(opardict.korean.go.kr/main)’에서 발췌.

2) 품사 및 원어 정보

「독자사전」 수록 어휘의 어휘정보 분석은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말샘’⁴⁵은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종합국어대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어휘를 포함하여 100만 어휘 이상을 수록하고 있는 오픈사전으로 2016년 10월 개통하였다. 오픈사전이라는 점에서 신어·방언·전문용어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개방성과 언중이 필요로 하는 언어정보를 수록하여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전통계 정보와 ‘내단어장’에 저장한 어휘정보를 엑셀파일로 내려받아서 활용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국외 언어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자료의 확장성이 높은 ‘우리말샘’을 활용하게 되었다. ‘우리말샘’에서 「독자사전」 수록 어휘를 검색하여 ‘내단어장’에 저장 및 ‘사전내려받기’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독자사전」에 소개된 어휘 중에는 외국어를 음차 표기한 경우도 있어 ‘우리말샘’에서 누락된 어휘의 경우는 네이버 사전을 참조하였다.

처음 수록된 1940년 5월 10일자 「독자사전」에는 ‘공예작물, 생면, 저수지, 풀리, 꿀찌와치야, 곰모즈, 진가우즈’ 등 7개의 명사류 어휘가 소개되었다. 「독자사전」 수록 어휘를 ‘우리말샘’과 ‘네이버 사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1,221개 어휘 중 관형사, 명사, 의존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품사로 분류된 어휘가 1,067개, 복합어와 어근 형태로 수록되어 하나의 어휘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어원이나 품사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어휘가 154개였다.

품사별로는 명사가 995개(81.5%)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 다음으로 형용사 및 동사 등 용언류, 부사 등 수식언류 순이었으며, 어근 또는 어절 형태로 소개된 경우도 있었다. 명사가 가장 많이 소개된 것은 어휘 중

45 ‘우리말샘’ 소개는 다음 링크 참조(opendict.korean.go.kr/service/helpList).

명사류가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자사전」이 신문 기사 중 ‘어려운 술어와 외래어를 해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있었으므로 소개 어휘가 명사류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어 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혼종어 중 한자어가 약 80%인 982개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앞서 ‘어휘의 배열’ 부분에서 언급한 “조선어 상식이 약한 특히 한문에 대한 개념이 적은 독자들을 표준”으로 소개되었기에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와 비교할 때 한자어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레닌기치》가 순 한글 신문이었기 때문에 한자를 표기하여 의미를 변별하여 줄 수 없어, 한자어 어휘풀이 필요성이 커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외래어는 100개가 수록되었는데, 98개가 명사였고 2개는 구 형태였으며, 어휘의 주제 분야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혼종어는 동사 22개, 형용사 33개, 명사 13개, 부사 3개, 품사 없음 20개 등 91개가 수록되었는데, 용언류의 경우는 한자어 어근으로 이루어진 경우였고, 구 형태로 수록된 경우는 한자와 외래어, 한자와 고유어로 구성된 경우였다.

수록 어휘를 품사별 원어 정보에 따라 분류하면 표5와 같다.

표5- 「독자사전」의 품사별 원어 정보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미상	소계(%)
명사 등	22	852	98	13	11	996 (81.6)
동사	4	-	-	22	-	26 (2.1)
형용사	5	1	-	33	-	39 (3.2)
부사	1	3	-	3	-	7 (0.6)
품사없음/미상*	-	126	2	20	5	153 (12.5)
합계(%)	32(2.6)	982(80.4)	100	91(7.5)	16(1.3)	1,221 (100)

* 품사없음/미상: 어근, 구 구성 표제어 등

3) 범주별 특징

‘우리말샘’에서는 다양한 원어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어의 전문분야별 현황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우리말샘 사이트 ‘사전통계’ 중 ‘통계내려보기’ 메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정보에 의하면 사전에 수록된 어휘들은 전문어와 일반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 「독자사전」 수록 어휘들은 전체 1,221개 중 일반어 790개(64.7%), 전문어 431개(35.3%)로 분류된다.⁴⁶ 「독자사전」 수록 어휘가 ‘우리말샘’ 수록 어휘보다 일반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을 독자로 하는 신문에 수록된 어휘풀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문어와 일반어의 한자어 비중은 각각 80% 수준으로 표6과 같이 전반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전문분야는 크게 ‘인문, 사회, 자연, 산업, 보건, 공학, 예체능, 종교, 명칭’ 등의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독자사전」에 수록된 전문어 431개 어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언어·문화, 역사·민속, 철학·사조, 교육) 23.2%(100개), 사회(법률, 군사, 경영·경제, 정치·행정, 매체) 23.0%(99개), 자연(천문·지리·지구, 생명, 물리·화학) 20.0%(86개), 산업(광업·농업·어업, 공업) 9.0%(39개), 보건(의약학) 7.0%(30개), 공학(건설·교통, 기계, 전기·전자·정보·통신) 4.6%(20개), 예체능(예술) 8.1%(35개), 종교 2.6%(11개), 명칭(인명·지명·고유명) 2.6%(11개)로 나타났다. 소개 어휘들의 한자어 비중

표6- 「독자사전」과 ‘우리말샘’의 전문어와 일반어 수록현황

구분	레닌기치				우리말샘(%)	
	수록 어휘수(%)		한자어(%)			
전문어	431	(35.3)	347	(35.3)	497,544	(44.2)
일반어	790	(64.7)	635	(64.7)	628,006	(55.8)
합계	1,221	(100.0)	982	(100.0)	1,125,550	(100.0)

46 ‘우리말샘’은 표제어 별로 어휘 설명에 전문어의 경우 전문분야가 표시되어 있다.

도 분야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우리말샘’ 수록 어휘통계와 비교해보면 인문, 사회, 자연 분야 어휘가 전반적으로 많이 소개되었다. ‘우리말샘’의 전문분야별로 「독자사전」 수록 어휘를 분류하면 표7과 같다.⁴⁷

표7- 「독자사전」 및 ‘우리말샘’의 전문분야별 수록어휘 수

대분류	전문 분야 중분류	전체 표제어			한자어 표제어			전문분야별 우리말샘 수록 어휘 비중
		개수	소계	비율	개수	소계	비율	
인문	언어, 문학	22	100	23.2%	19	81	23.3%	10.6%
	역사, 민속	15			7			
	철학, 사조	60			53			
	교육	3			2			
사회	법률	30	99	23.0%	30	85	24.5%	15.7%
	군사	16			13			
	경영, 경제	26			21			
	정치, 행정	25			19			
	매체	2			2			
자연	천문, 지리, 지구	29	86	20.0%	26	69	19.9%	18.2%
	생명	22			21			
	물리, 화학	35			22			
산업	광업, 농업, 어업	28	39	9.0%	22	31	8.9%	4.6%
	공업	11			9			
보건	의약학	30	30	7.0%	28	28	8.1%	11.9%
공학	건설, 교통	8	20	4.6%	7	16	4.6%	19.7%
	기계	6			4			
	전기, 전자, 정보, 통신	6			5			
예체능	예술	35	35	8.1%	26	26	7.5%	10.5%
종교	종교	11	11	2.6%	8	8	2.3%	2.7%
명칭	인명, 지명, 고유명	11	11	2.6%	3	3	0.9%	6.1%
합계			431	100.0%		347	100.0%	100%

47 표7에 기술한 우리말샘 수록 어휘의 비중은 ‘우리말샘’ 통계자료의 전문분야별 통계정보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작성하였으며, 다음을 참조하였다(opendict.korean.go.kr/service/dicStat#stat_memu2).

IV. 맺음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순한글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를 재외동포가 국외에서 생산한 언어 자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952년 《레닌기치》 발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지역 한인 언론의 흐름과 《레닌기치》 발행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신문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어휘를 풀이하여 연재한 「독자사전」란을 분석하였다. 발행기간 동안 1,221개의 어휘가 약 128회 수록되어 기간이나 수록횟수에 비해 소개된 어휘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정된 지면에 민족어인 조선어와 관련된 독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어휘 분석을 위해 사전적(辭典的)인 정보는 '우리말샘'의 원어정보를 활용하였고, 어휘 풀이는 일제강점기 및 북한지역에서 발행된 조선어사전류와 비교하였다. 어휘 분석결과 소개된 어휘는 명사가 다수였고, 한문 표기가 불가능한 한글 신문이라는 한계와 한자어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한자어의 소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한국어 사전보다 일반어 비중이 높았고, 다루어진 어휘의 주제 분야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신문에 어휘풀이를 소개하던 전통은 강제이주 이전에 발행된 《선봉》신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어휘를 소개하는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전의 어휘풀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확인된 일부 기간의 어휘풀이 기술은 북한지역에서 발행된 사전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조선어, 러시아어, 거주국 언어라는 다중적인 언어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어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독자사전」의 한자어 관련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제시 사례를 통해 향후 비한자문화권 한국어 어휘교육에서 한자를 배제한 어휘 소개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생각해보게 한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가 국외에서 생산한 한글 자료에 대한 분석 시도로, 러시아지역 재외동포사 및 재외동포 문화사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레닌기치》. 레닌기치신문사, 1938.5.15-1990.12.28.

《선봉》 제1권-10권. 고려서림, 1999.

데·엠·우싸또브, 유·엔·마수르, 브·엠·모스드코브 공저, 『로조사전』. 모스크바: 국립외국어급민족어사전출판사, 1951.

문세영,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조선어사전간행회, 1942.

_____, 『조선어사전』. 조선어사전간행회, 1938.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아·아·홀로도위치, 『조로사전』. 모스크바: 국립외국어급민족어사전출판사, 195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편, 『조선말사전1』.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편, 『조선어소사전』.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1955.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조선총독부, 1920.

2. 단행본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이론과 실천, 1990.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_____, 『연해주어부, 광부, 당교육, 동방꿈무나, 공격대원, 쓰딸린네츠, 레닌광선, 로동자(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이균영, 『선봉1』. 고려서림, 1999.

3. 논문

강희진, 「《레닌기치》에 수록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비평 고찰」. 『시학과 언어학』 제30호, 2015, 69-96쪽.

_____,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 비평의 특징 고찰: 신문 《레닌기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22권, 2017, 7-25쪽.

_____, 「리정희 소설 연구: 《레닌기치》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 제46권, 2019, 207-236쪽.
- 김병학, 「재소고려인 한글신문 고려일보의 역사와 전망」. 『재외한인연구』 제46호 2018, 35-66쪽.
- 김정현·장우권·김홍길, 「러시아에서의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1900-19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 2006, 357-379쪽.
- 김현주, 「《레닌기치》에 반영된 고려인 사회: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6집, 2017, 373-402쪽.
- 김환기, 「구소련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과 전개양상: 《선봉》/《레닌기치》/《고려일보》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2집, 2020, 45-83쪽.
- 신중진·엄태경, 「중보판 《조선말대사전》(2006)의 동족어부류에 대한 고찰」. 『국어학』 제74호, 2015, 143-174쪽.
- 우정권, 「고려인문학의 성격과 전개 양상」. 『현대소설연구』 제44호, 2010, 229-265쪽.
- 유승만,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이론과 실제」. 『러시아연구』 제18권 제2호, 2008, 141-165쪽.
- 이진혜, 「《레닌기치》 기사분석을 활용한 박물관 설립방안 연구: 1986년-1991년 《레닌기치》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야나, 「고려인 신문(레닌기치/고려일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허재영, 「국어사전 편찬 연구사」. 『한국사전학』 제13호, 2009, 268-312쪽.
- 홍응호, 「《레닌기치》에 나타난 1938년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아시아문화연구』 제32집, 2013, 347-378쪽.
- _____. 「《레닌기치》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독립운동 인식: 3.1운동과 8.15해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人文科學』 62권, 2016, 5-37쪽.
- _____. 「《레닌기치》를 통해 본 스탈린시기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사람(성대사람)』 54권, 2015, 295-320쪽.

4. 신문

- 《동아일보》, 1923년 4월 1일자.
- 《레닌기치》, 1938년 5월 15일자, 1940년 5월 10일자, 6월 6일자, 7월 18일자, 12월 26일자, 1943년 10월 1일자, 1944년 7월 26일자, 1950년 7월 28일자,

1952년 1월 1일자, 1954년 1월 5일자, 8월 13일자, 8월 21일자, 1958년 3월 9일자, 6월 1일자, 1960년 1월 1일자, 10월 4일자, 1961년 10월 15일자, 1962년 8월 12일자, 1964년 10월 18일자, 1965년 2월 9일자, 1966년 5월 24일자, 6월 1일자, 1978년 8월 22일자, 9월 1일자, 9월 5일자, 1984년 9월 4일자, 1988년 5월 15일, 1989년 5월 28일자, 1989년 8월 8일자, 1990년 12월 29일자.

《선봉》, 1937년 9월 5일자, 1937년 9월 12일자, 1926년 12월 2일자, 1926년 12월 16일자.

5. 사이트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우리말샘(opendict.korean.go.kr/main).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대동공보&ridx=1&tot=4, 검색일: 2020.12.19.

ko.wikipedia.org/wiki/%ED%95%B4%EC%A1%B0%EC%8B%A0%EB%AC%B8, 검색일: 2021.2.17.

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23-04-01&officeId=00020&pageNo=1, 검색일: 2020.12.20.

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72518&viewType=confirm, 검색일: 2020.12.20.

opendict.korean.go.kr/service/dicStat#stat_memu2, 검색일: 2021.8.11.

opendict.korean.go.kr/service/helpList, 검색일: 2021.8.11.

국문초록

《레닌기치(Lenin Gichi)》신문은 ‘재소한인’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이 신문은 50년 넘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순한글 고려인 신문으로, 러시아지역 한국학 연구를 위해 주로 활용되었으나, 재외동포의 민족어 또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지역의 한국어 활용을 고찰하기 위해 《레닌기치》 기사 중 독자들이 한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를 뜻과 함께 연재한 「독자사전」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단계로 《레닌기치》 창간 전까지 러시아지역에서 고려인이 발행한 한글 신문의 발행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레닌기치》 발행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다음으로 《레닌기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로 독자가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재한 「독자사전」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적(辭典的)인 정보를 고찰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독자사전」의 수록 빈도, 수록 시기, 어휘 수, 배열 등을, 사전적 정보로는 어휘풀이, 품사, 어휘의 범주 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발행기간 동안 약 1,221개 어휘가 소개되어 기간에 비해 소개된 어휘의 숫자는 많지는 않았다. 소개된 어휘는 명사가 다수였고, 한문 표기가 불가능한 한글 신문이라는 한계 때문에 한자어의 소개 비중도 높았다. 전문어 보다는 일반어가 많았고 다양한 범주의 어휘를 소개하였다. 소개 어휘의 풀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일부 시기의 경우는 당시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을 참고하여 소개된 것으로 보였다. 분석의 과정에서 한국어, 러시아어, 거주국 언어라는 다중적인 언어 상황에 놓였던 고려인들이 자신의 민족어를 유지하고 언어 능력을 성장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생산한 한글 자료에 대한 분석의 시도로,

러시아지역 재외동포사 및 재외동포 문화사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투고일 2021. 3. 22.

심사일 2021. 4. 7.

게재 확정일 2021. 8. 6.

주제어(keyword) 레닌기치(Lenin Gichi), 고려인(Goryeoin), 독자사전(Reader's Dictionary), 우리말샘(Urimalsaem), 계승어(Heritage Language)

Abstract

A Study on the 'Reader's Dictionary' of the Vocabulary
Introduction Column of the Goryeoin Newspaper "Lenin Gichi"
Choi, Hye Jyn

The "Lenin Gichi" newspaper has been used as a major source of research on 'Koreans in the Soviet Union'. It was a representative Goryeoin newspaper published entirely in Korean across Central Asia for over 50 years. It was mainly used for Korean Studies in Russia region, but it is also valuable as a data for studying the National Language or Inheritance Language of overseas Koreans. In this study, the 'Reader's Dictionary', which is one of columns of "Lenin Gichi" to enhance the readers' comprehension of articles by introducing Korean vocabularies and explaining their meaning, was analyzed to examine the use of Korean language in the Russia region.

As the first step of the analysis, the trend of Korean newspapers published by Goryeoin in Russia region during the period when "Lenin Gichi" was not publish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Lenin Gichi" were reviewed.

The next step was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information from a dictionary perspective of the 'Reader's Dictionar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ed publication frequency, publication trend per month, the number of vocabularies published, and the arrangement of the column. The information from the dictionary point of view deal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vocabulary, the word class, and the category of vocabula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most 1,221 vocabularies were introduced from all the columns in the newspapers, but the number of vocabularies was not large considering the publication period. Among the introduced vocabularies, the proportion of nouns was high, and the vocabularies based on Chinese characters were frequently introduced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newspaper written only in Korean without Chinese characters. There were more general and ordinary vocabularies rather than professional ones, and the introduced vocabularies covered a wide spectrum of categories. It seemed difficult to maintain and expand their National Language in the multilingual situation of Korean, Russian, and the language of the country of residenc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Korean language produced overseas by Koreans abroad, and it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overseas Koreans in Russia region and the cultural history of overseas Koreans. These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s in the future.

